

唐 이전 寓言에 나타난 馬 형상 변천 양상 고찰*

權娥麟**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馬의 근원적 상징 의미 - 신성과 경외의 원류
 - III. 馬 형상의 발전 - 생태적 상징에서 문화적 상징으로
 - IV. 馬 형상의 유형과 의미 - '建功立業'과 '懷才不遇'의 交錯
 - IV. 맺음말
-

I. 들어가는 말

寓言은 위정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인 특수한 글 쓰기 형식이다. 목숨을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복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말한 것 같지 않은 비유나 인용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법이 필요했다. 잘 알려진 인물의 일화나 친숙한 대상의 특성을 끌어오는 것은 청자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설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일종의 우회 장치였다. 기술자, 바보, 장인 등 특정 인물의 성격이나 직업적 특성 혹은 동물의 특징으로부터 연상되는 이미지를 주제와 연결시키게 되면 흥미와 주제 전달력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서사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언은 개성을 지닌 특정 형상에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언에 나타나는 형상이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 의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농경 생활을 근거로 하는 중국에서 쥐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친숙한 대상이면서 비축된 곡식을 축내기 때문에 부정적 존재로 인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7135).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식되어 왔다. 이에 韓非子는 나라를 좀 파먹는 부패한 관리를 社稷에 살고 있는 쥐로 형상화하였고, 백정의 고기 해체 기술은 그 대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에 착안한 장자는 도를 체득한 사람을 백정으로 형상화하였다. 반대로 쥐나 백정을 보며 각각 부패한 관리와 도를 체득한 사람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작가의 모방이나 독자의 학습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단계가 되면 형상을 통해 특수한 문화적 배경과 작가의 주체의식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왜 말인가?

먼저, 동물우언 중 말과 관련된 우언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馬亞中, 吳小平의 《中國寓言大辭典》(江蘇文藝出版社, 1997)에는 총 645편의 우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동물우언은 106편이고 말과 관련된 우언은 31편¹⁾에 달해 동물우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역사적 인물이 위주가 되는 우언 창작 전통²⁾을 볼 때 적지 않은 수이다. 말이라는 대상에 투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춘추전국시대의 우언에 등장하는 말의 상징 의미는 이후 지속적으로 수용되어 문화적 원형이 되었고,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쳐 세분화된 이후 그 의미가 풍부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형상 의미의 변화 과정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말과 관련된 형상을 유형화하여 각각의 의미를 도출해내고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니 주로 唐詩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산문이나 소설 등 서사 작품에 나타난 말 형상이 복합적 상징 의미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는 통시적 연구는 거의 없는 듯하다. 신화, 선진시기의 문학 작품 또는 唐詩의 말 意象 발전에 영향을 주는 전 단계로써 간략하게 살펴보는 등 몇몇의 논문에 산발적으로 언급될 뿐이었다. 중국의 특수한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우언을 창작한 주체의 주제 의식을 살펴볼 수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말 형상의 의미 또한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속에 투영된 작가의 심리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의

1) 말 외에 호랑이, 여우, 새, 원숭이 등을 꼽을 수 있다.

2) 이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상치한다. 그러나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한 실용성 중시, 역사적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관념, 인간을 중시하는 유가적 가치관 등의 영향이라는 데에는 異見이 없다.

의가 있음에도 어떤 과정을 통해 문화적 상징 의미가 되었는지 충분한 이해를 하기에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말의 상징 의미를 살펴보고 우언이라는 문학 작품에서 하나의 문화적 상징 의미가 되는 변천 과정을 고찰하여 그 속에 반영된 문인의 내재 심리 변화와 의의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³⁾

II. 馬의 상징 의미 - 신성과 경외의 원류

우언에 나타나는 말 형상의 유형과 의미를 고찰하기에 앞서 문화적 상징 의미로 고착화되기 이전의 典籍, 辭典 등에 나타나는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 중국에서는 “하늘을 가는 데는 용만한 것이 없고, 땅을 달리는 데는 말만한 것이 없다.”⁴⁾라는 말이 현재에까지 통용될 정도로 말을 신성한 존재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우언에 나타나는 말의 상징 의미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기에 문화적 상징 기저에 자리 잡은 말에 대한 선형적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을 살펴보자.

북해 안쪽 지방에 생김새가 말과 같은 騊駼라는 짐승이 있었다. 또 다른 짐승이 있었는데 이름을 駘이라 한다. 생김새는 백마와 비슷하지만 툽니 같은 날카로운 어금니가 있어 호랑이와 표범을 주로 먹고 산다. 또 본바탕이 흰 짐승이 있는데 생김새가 말과 같고 이름을 蛩蛩이라고 한다. (北海內有獸, 其狀如馬, 名曰騊駼. 有獸焉, 其名曰駘, 狀如白馬, 鋸牙, 食虎豹. 有素獸焉, 狀如馬, 名曰蛩蛩)⁵⁾

기원전 3-4세기경에 지어졌다는 《山海經》에 나타난 말에 대한 기록이다. 중국 고대 신화의 시대에는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여러 종류의 말을 인식하고 구분했던 듯하다. 각각의 말은 다른 기록에도 나타난다. 騊駼는 야생마의 일종으로 푸

3) 본고에서는 선형적 인식 → 생태적 인식 → 문화적 인식의 발단이 되는 순서로 선진에서 위진남북조까지의 과정을 고찰하고, 후속연구로 당송 이후 문화적 형상으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확대·발전되는 모습을 추적하고자 한다.

4) 裴駟集解《史記·平準書》中華書局, 2009, 1428쪽: “天用莫如龍, 地用莫如馬.”

5) 袁珂《山海經校注·海外北經》上海古籍出版社, 1980, 246-247쪽.

큰색이고, 북쪽 오랑캐의 良馬로써 뛰어난 임금이 즉위하면 나타나는 말이라고 하였다.⁶⁾ 駮는 백마와 비슷하게 생겼고, 이가 날카로워 호랑이와 표범을 먹고 산다고 했다. 이는 《逸周書》에 기록된 駮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駮은 義渠 지방의 茲白으로 흰 말과 비슷하며 톱날 같은 이빨로 호랑이와 표범을 잡아먹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⁷⁾ 또한 《山海經》의 〈海外北經〉편은 동북쪽 모퉁이에서 서북쪽 모퉁이까지의 이야기가 수록된 것이고, 義渠는 지금의 甘肅省 옛 慶陽府이기 때문에 두 지역이 서로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逸周書》의 기록은 서북 소수민족이 周王에게 말을 진상하며 그 상태를 말한 것이다. 서북 지역의 길들여지지 않은 사나운 말이 중원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蚩蚩은 蚩蚩鋸虛라고도 한다. 蚩蚩鋸虛는 한 번에 백리를 달리는 짐승이다.⁸⁾

정리해보면, 駮는 북쪽의 푸른색 야생마이고, 駮은 서북쪽의 백마이며, 蚩蚩은 백리마이다. 모두 인간 사회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駮이라는 말의 외형과 습성이다. 이는 《管子》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齊나라 桓公이 말을 타고 가는데 멀리서 그를 보고 놀란 호랑이가 황망히 땅에 엎드렸다. 환공이 管仲에게 물었다. “오늘 과인이 말을 타는데 호랑이가 나를 보고 감히 도망가지 않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생각하건데 공께서 얼룩무늬 준마를 타고 배회할 때 태양을 향해 달려갔습니까?” 환공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관중이 대답했다. “이는 駮이라는 녀석이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駮은 호랑이와 표범을 먹고 살기 때문에 호랑이가 당혹했을 것입니다.”(桓公乘馬，虎望見之而伏。桓公問管仲曰：“今者寡人乘馬，虎望見寡人而不敢行，其故何也？”管仲對曰：“意者君乘駮馬而游桓，迎日而馳乎？”公曰：“然。”管仲對曰：“此駮象也。駮食虎豹，故虎疑焉。”)⁹⁾

駮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 호랑이를 잡아먹는 맹수였다.

-
- 6) 郭璞注，邢昺疏《爾雅注疏·釋畜》；《十三經注疏》北京大學出版社，1999，334쪽：“駮駮馬，北海有獸，狀如馬，名駮駮，色青。……北狄良馬也。……有名王在位即至。”
- 7) 袁珂《山海經校注·海外北經》上海古籍出版社，1980，247쪽：“正北方義渠以茲白，茲白者若白馬，鋸牙，食虎豹。”
- 8) 위의 책，247쪽：“卽蚩蚩鋸虛，一走百里。”
- 9) 黎翔鳳撰，梁運華整理《管子校注·小問》中華書局，2004，968쪽.

춘추전국시대에는 말은 이미 교통수단으로써 길들여졌다. 그런데 제나라 환공이 타고 다니는 준마가 흡사 신화·전설에 나오는 駮과 같아 보여 호랑이가 무서워 도망갔다고 풀이하였다. 이를 보아 춘추전국시대에도 흥포한 야성을 지니고 있는 야생마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주는 두려움 혹은 신화적 상상력이 더해진 말에 대한 인식은 龍馬전설을 통해 더욱 확대된다. 전설에 따르면 말의 선조는 날개가 달린 용인 應龍이다. 모든 짐승의 선조는 毛犢이며 모독에게서 應龍이 태어나고, 應龍으로부터 健馬가 태어났으며 건마에게서 麒麟이, 기린으로부터는 모든 짐승이 태어났다고 한다.¹⁰⁾ 應龍은 蚩尤를 쓰러뜨리고 거인 誇父를 죽였을 정도로 용맹하고 신성한 존재였다.¹¹⁾ 그리하여 “말이 8척 이상이면 龍이고, 7척 이상이면 駮이고, 6척 이상이면 馬”라고¹²⁾ 표현할 정도로 말과 용을 대등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이다. 龍馬전설은 다음과 같다. 龍馬는 황하에 살고, 용처럼 생겨 물 위를 달릴 수 있었다고 한다. 등 위에 기괴한 그림이 있었는데, 성인인 伏羲가 이 그림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八卦’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駮과 麒麟이 성인과 함께 등장하는 것처럼 龍馬 또한 통치의 정당성을 천명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는 말이 갖고 있는 신성함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처럼 고대에는 말의 외형과 습성, 신화·전설적 요소가 결합되어 복합적인 상징 의미가 생겨났다. 그렇다면 용마의 등 그림을 보고 팔괘를 만들었다고 하는 《周易》에서의 말의 상징 의미는 어떠한가?

乾은 굳건함이고, 坤은 온순함이며, 雲은 움직임이고, 巽은 들어가는 것이다. …… 乾은 말이고, 坤은 소이며, 雲은 용이고, 巽은 닭이다. …… 乾은 하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라 칭한다. 坤은 땅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라고 칭한다. …… 乾은 하늘이 되고 둥근 것이 되고, 임금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옥이 되고, 금이 되고, 추움이 되고, 열음이 되고, 크게 붉은 것이 되고, 良馬가 되고, 老馬가 되고, 瘠

10) 張雙棣《淮南子校釋·地形訓》北京大學出版社, 1997, 504쪽: “毛犢生應龍, 應龍生建馬, 建馬生麒麟, 麒麟生庶獸, 凡毛者, 生於庶獸.”
 11) 袁珂《山海經校注·大荒東經》上海古籍出版社, 1980, 359쪽: “大荒東北隅中, 有山名曰: 凶犁土丘. 應龍處南極, 殺蚩尤與誇父, 不得復上.”
 12) 孫詒讓《周禮正義·夏官·瘦人》中華書局, 2000, 2629쪽: “馬八尺以上爲龍, 七尺以上爲駮, 六尺以上爲馬.”

馬가 되고, 駁馬가 되고, 나무 열매가 된다. (乾健也, 坤順也, 雲動也, 巽入也. …… 乾爲馬, 坤爲牛, 震爲龍, 巽爲雞. …… 乾天也, 故稱乎父也, 坤地也, 故稱乎母. …… 乾爲天爲君乾爲天, 爲圓, 爲君, 爲父, 爲玉, 爲金, 爲寒, 爲冰, 爲大赤, 爲良馬, 爲老馬, 爲瘠馬, 爲駁馬, 爲木果.)¹³⁾

《周易》에서는 동물의 특성과 성질을 팔괘에 따라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반대로 말에 대한 인식과 상징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말은 깨끗하게 달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乾'에, 소는 느리고 순하기 때문에 땅을 상징하는 '坤'에 분류했다. 옥이나 금은 순수하면서 단단하기 때문에 '乾'이고, 추위와 얼음은 '陽'이 생성될 때의 상태이며, 붉은 색도 '陽'의 색이다. 말은 옥, 금, 추위, 얼음, 열매, 붉은색과 같이 '陽'의 기운으로 분류되었다. 良馬, 老馬, 瘠馬, 駁馬 등으로 말의 종류를 세분화하기도 했는데 良馬는 우수한 말이고, 瘠馬는 단단한 뼈를 가진 말로써 이는 이후 말을 감별할 때 상급의 말을 가려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老馬는 연륜과 지혜를 지녔기에, 駁馬는 얼룩말을 뜻하지만 그 옥의 무늬와 같이 천연의 질서를 지녔기에 '乾'이고 '陽'의 속성을 지녔다고 보았다.¹⁴⁾ 이처럼 말이 갖고 있는 생태적 특성이 음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말이 가진 '陽剛'¹⁵⁾한 속성은 그대로 수용되어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說文解字》에 나타난 '馬'는 “화내고, 씩씩하다.”¹⁶⁾라고 풀이된다. 전쟁(武)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 관직인 大司馬의 '馬'가 '武'의 의미인 까닭이다.¹⁷⁾ 또한, 매미 가운데 가장 큰 것을 馬螞¹⁸⁾라 하여 개체의 속성을 구분할 때 크기가 큰 것을 말에 비유한 것처럼 말의 생태적 속성이 곤충의 작명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종합해보면 말의 거대한 외형, 날쌔 동작, 거친 야생의 생태가 '乾'과 '陽'의 속성

13) 王弼注, 孔穎達疏 《周易正義·說卦傳》: 《十三經注疏》北京大學出版社, 1999, 329-330쪽.: 역을 만드는 과정, 역의 내용, 점법 설명, 자연현상 및 만물을 팔괘로 분류시켰다.

14) 이기동 역해 《주역강설》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989-990쪽 참조.

15) 말은 오행이 강하며 왕성한 상태, 天, 外, 明의 속성에 비견된다.

16) 許慎 《說文解字》中華書局, 2007, 199쪽: “馬怒也, 武也.”

17) 段玉裁注 《說文解字注》上海古籍出版社, 1981, 822쪽: “大司馬. 馬, 武也, 大總武事也.”

18) 郭璞注, 邢昺疏 《爾雅注疏·釋蟲》: 《十三經注疏》北京大學出版社, 1999, 282쪽: “螞, 馬螞. 螞中最大者爲馬螞.”

을 부여받도록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다시 용맹과 강인한 힘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도록 했을 것이다. 길들여지지 않은 野性의 경외로부터 용모의 비범함과 龍馬의 이미지가 더해졌고, 건장하고 용맹한 속성이 더해져 복합적인 상징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로써 “하늘을 가는 데는 용만한 것이 없고, 땅을 달리는 데는 말만한 것이 없다.”는 비유처럼 용과 비견되는 말의 신성함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Ⅲ. 馬 형상의 발전 - 생태적 상징에서 문화적 상징으로

1. 인간 심성 비유, 군신 관계 모순의 매개체

상징과 비유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자연물이 지닌 특성을 인간의 정신과 도덕 관념에 결부시키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여하게 되고 의미를 확장시켜나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陳望道의 말을 빌리면 ‘比德’의 단계이다.¹⁹⁾ ‘德’은 인간의 덕성이며 정신적 품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의 대상물은 인격화하게 되고, 동시에 인간의 특성은 자연물에 투영되어 객관화되면서 풍부해진다.

말이라는 대상에 적용시켜보면 신화·전설적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 첫 번째이다. 이후에는 살펴본 바와 같이 말이 지닌 범상한 외형과 생태적 속성이 더해져 ‘陽’, ‘剛’, ‘乾’과 같은 성질이 부여된다. 모두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다. 그런 후 인간의 품성이 연결되는 ‘比德’의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실제로 이와 상응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乾은 말이 되고……,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굳자는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심신을 강건케 하기 위해 쉬지 않고 힘쓴다.”²⁰⁾라고 하였다. ‘乾’과 ‘天’의

19) 陳望道는 인류가 자연을 인식할 때 ‘致用’, ‘比德’, ‘暢神’의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한 바 있다. 《美學十論·論美與自然》上海人民出版社, 1984, 67-68쪽: “人類對自然認識的第二個階段是‘比德’階段。……人們不再拘泥於從實用及物質功利的觀點來對待自然物了, 而是將自然物與人的精神生活, 道德觀念聯繫起來, 重在自然物的自然屬性對社會生活美的象征比喻作用。”

20) 王弼注, 孔穎達疏《周易正義·乾卦》; 《十三經注疏》北京大學出版社, 1999, 10쪽: “乾爲馬……, 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속성은 ‘陽’, ‘剛’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자연의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하고 선량하며 기세가 있는 군자와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말이라는 대상에 인간의 품성을 기탁하여 객관화하면서 동시에 말이 인간으로 의인화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驥’라는 말을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그 힘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덕을 일컫는 것이다.”²¹⁾라고 한다던가, “말은 먼저 길들여진 후에야 준마인지 아닌지 살피어야하고, 사람은 먼저 믿을만해야만 그 능력을 따질 수 있다.”²²⁾, “준마는 지나친 부림에 의해 죽고, 곧은 선비는 바른 행위로 인해 곤란함을 당하며, 어진 사람은 조정에서 배척당하고, 미너는 궁궐에서 시샘을 받는다.”²³⁾와 같은 예들은 준마와 덕을 갖춘 군자를 자연스럽게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면 긍정적인 품성을 갖고 있는 인간, 혹은 인간군에 대한 비유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게 된다.

한편, 《楚辭》에 나타나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인식을 계승하면서 다른 양상의 말이 나타난다. 바로 ‘千里馬’ 형상이다. 이는 穆王과 八駿馬 신화와 관련이 있다.

穆王은 여덟 필의 駿馬가 끄는 수레에 올랐다. 우측으로는 盜驪를 가운데에 부리고, 좌측으로는 騄耳를 바깥에 부렸다. 造父를 마부로 삼고 緄戎을 오른쪽에 태워 만 리를 쉬지 않고 달려 사방의 끝을 주유하고 명산대천을 오르고 건너지 않은 곳이 없었다. …… 《史記》를 보면 목왕이 盜驪, 騄耳, 驊騮와 같은 천리마를 얻자 조보로 하여금 물게 하여 서쪽을 순수하고 서왕모를 만나 즐기라 돌아올 것을 잊었다고 했는데 역시 《竹書》의 기록과 같다. 《左傳》에는 “목왕이 한껏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천하의 모든 곳에 수레바퀴와 말의 발자취를 남겼다.”고 했다. (穆王駕八駿之乘, 右服盜驪, 左騄騄耳, 造父爲禦, 奔戎爲右, 萬里長驚, 以周曆四荒, 名山大川. …… 案史記說穆王得盜驪騄耳驊騮之驥, 使造父禦之, 以西巡狩, 見西王母, 樂而忘歸. 亦與竹書同. 左傳曰, 穆王欲肆其心, 使天下皆有車轍馬跡焉.)²⁴⁾

21) 楊伯峻《論語譯注·憲問》中華書局, 2004, 156쪽: “驥不稱其力, 稱其德也.”

22) 張雙棣《淮南子校釋·說林訓》北京大學出版社, 1997, 1817쪽: “馬先馴而後求良, 人先信而後求能.”

23) 위의 책, 1809쪽: “駿馬以抑死, 直士以正窮, 賢者擯於朝, 美女擯於宮.”

24) 袁珂《東晉郭璞注山海經敘》; 《山海經校注》上海古籍出版社, 1980, 479쪽.

穆王은 천리마를 타고 천하를 주유하였고, 천리마를 지휘한 것은 마부 造父였다. 목왕이 서왕모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천리마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를 잘 조련한 조보의 역할이 컸다. 말은 '陽剛'한 기세를 지니며, 군자의 품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뛰어난 왕을 보필하는 신하는 자연스럽게 천리마, 혹은 조보와 비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楚辭》에는 군신간의 모순을 드러내는 매개체로 천리마가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²⁵⁾ “그 좋은 천리마는 타지도 않고 노둔한 말을 채찍질 해 길을 간다. 지금이라고 천리마가 없으리요. 말을 잘 모는 사람이 없는 탓이로다.”²⁶⁾라고 하여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해줄 군주가 없음을 개탄했고, “천리마와 함께 멩에 들어 달리리까? 둔한 말의 꿈무늬를 따라다닐까!”²⁷⁾라며 천리마와 노둔한 말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였다. 군주는 말을 모는 사람이고, 군주를 위해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신하는 말의 형상으로 대변되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군주에 대한 울분의 감정이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산될 수 있었다. 천리마가 인간으로 의인화될 수 있었던 것은 《楚辭》의 영향도 있었을 거라 여겨진다. 하지만 한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 의미로 공고화되고, 구체적인 스토리를 갖게 되는 것은 춘추전국시대의 士계층과 우언의 역할이 컸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2. 相馬 기술 발전, 千里馬와 인재

기품을 지닌 군자의 대변, 혹은 군신 관계의 모순을 드러내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했던 말의 상징 의미는 춘추전국시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지형이 험준하고 농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말 생산이 많은 중국에서는 교통수단으로 말이 쉽게 이용되었다. 이와 관련한 기록이 《詩經》에 여러 차례 나타난다. “소를 길들이고 말을 타 무거운 것을 끌고 멀리 보냄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였다.”²⁸⁾, “좋은

25) 姜亮夫의 《楚辭通故》(齊魯書社, 1985)에 의하면 군신간의 모순을 드러내는 '騏驎' 意象은 18번에 걸쳐 나온다.

26) 洪興祖 《楚辭補注·九辯》中華書局, 1983, 189쪽: “卻騏驎而不乘兮, 策騫駘而取路. 當世豈無騏驎兮, 誠莫之能善禦.”

27) 洪興祖 《楚辭補注·荀居》中華書局, 1983, 178쪽: “寧與騏驎充軛乎? 將隨騫馬之跡乎!”

말은 타기 어려우나 무거운 것을 맡아 멀리 이를 수 있다.”²⁹⁾라고 하였듯이 말은 일찍부터 교통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말은 장거리를 움직여야 하는 장기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다. 좋은 말을 골라내고, 많은 수의 말을 보유하는 것은 바로 국력과 직결되었다.³⁰⁾ 《史記》에는 전국 시기 군용말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전국시기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했던 燕나라와 趙나라조차 각각 6000필, 만 필이라는 전쟁용 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였다.³¹⁾

그렇기에 말의 사육, 개량, 번식, 수입을 관장한 馬政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馬政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禮記》에 나타나므로³²⁾ 西周시기에 이미 말은 교통수단으로 보편화되었고, 좋은 말을 골라내는 相馬法이 존재했을 거란 추정이 가능하다.

춘추 시기에 이르면 말의 생김새를 보고 좋고 나쁨을 판별하는 相馬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種馬(번식), 戎馬(군대), 齊馬(의장), 道馬(역참), 田馬(수렵), 駑馬(잡역) 등 6가지로 말을 분류하고 관리하였다고 한다.³³⁾ 말을 용도별로 나누고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말에 대한 수요는 좋은 말을 감별하는 ‘相馬法’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말감별을 잘하는 인물들도 유명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伯樂, 九方臯 등 직업을 대표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보는 것이 말 아닌 것이 없었다. 정기가 말에 통했다.”³⁴⁾고 칭해질 정도로 그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그

28) 王弼注, 孔穎達疏 《周易正義·系辭下》; 《十三經注疏》北京大學出版社, 1999, 87쪽: “服牛乘馬, 引重致遠, 以利天下.”

29) 吳毓江撰, 孫啓治點校 《墨子校注·親士》中華書局, 1993, 2쪽: “良馬難乘, 然可以任重致遠.”

30) 范曄 《後漢書·馬援列傳》中華書局, 2007, 562쪽: “馬者甲兵之本, 國之大用. 安寧則以別尊卑之序, 有變則以濟遠近之難.”

31) 裴駟集解 《史記·蘇秦列傳》中華書局, 2009, 2243쪽: “燕東有朝鮮, 遼東, …… 地方二千餘里, 帶甲數十萬, 車六百乘, 騎六千匹, 粟支數年.”, “趙地方二千餘里, 帶甲數十萬, 車千乘, 騎萬匹.”

32) 鄭玄注, 孔穎達疏 《禮記正義·月令》; 《十三經注疏》北京大學出版社, 1999, 590쪽: “遊化別群, 則繫騰駒. 班馬政.” 注曰: “馬政, 謂養馬之政教也.”

33) 鄭玄注, 孔穎達疏 《禮記正義·雜記下》; 《十三經注疏》北京大學出版社, 1999, 1423쪽: “駑馬六種最下者.”; 王文錦, 陳玉霞點校 《周禮正義》中華書局, 2000, 2604쪽: “種馬一物, 戎馬一物, 齊馬一物, 道馬一物, 田馬一物, 駑馬一物.”

34) 許維通撰 《呂氏春秋集釋·季秋紀·精通》中華書局, 2009, 213쪽: “伯樂學相馬, 所見無非馬者, 誠乎馬也.”

들이 돌아보기만 해도 말의 가격이 뛰었다. 자연스럽게 훌륭한 말 감별사가 흠 속에 묻힌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말 선택 과정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다. 말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관련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민간에서 떠돌던 이야기를 신홍 계층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게 된 것이다. 다음의 우언을 통해 살펴보자.

蘇代가 燕나라를 위하여 齊나라로 유세하러 갔다. 먼저 淳於髡에게 유세하였다. “어떤 사람이 준마를 팔려고, 연 3일 동안 아침마다 시장에 서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伯樂을 찾아가 말하였습니다. ‘저에게 준마가 있어 그것을 팔려고 연 사흘 동안 아침마다 시장에 서 있어 보았지만, 값을 물어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대가 둘러보시고 떠나면서 돌아와만 주시면, 제가 하루의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백락이 둘러보고 떠나오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말의 가격이 열 배나 올랐습니다. 지금 저는 준마를 가지고 임금님을 알현하고자 합니다만, 저를 위하여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사옵나. 저의 백락이 되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蘇代爲燕說齊, 未見齊王, 先說淳於髡曰: “人有賣駿馬者, 比三旦立市, 人莫之知. 往見伯樂曰: ‘臣有駿馬, 欲賣之, 比三旦立於市, 人莫與言. 願子還而視之, 去而顧之, 臣請獻一朝之賈.’ 伯樂乃還而視之, 去而顧之. 一旦而馬價十倍. 今臣欲以駿馬見於王, 莫爲臣先後者. 足下有意爲臣伯樂乎?”³⁵⁾

상기의 우언에서 유세객 蘇代는 淳於髡에게 자신의 伯樂이 되어 주길 청하며 관련 일화를 이야기한다. 비록 준마라 할지라도 그것을 파는 사람이 평범하고, 시장에 말을 사러온 사람들 또한 좋은 말을 판별할 능력이 없다면 결국 준마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말감별로 유명한 백락이 돌아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열 배나 오른 가격으로 팔 수 있었다.

이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 해도 그 능력을 알아봐 주지 이를 만나지 못한다면 자신의 능력이 천리마와 같아하더라도 결국 힘차게 말발굽을 내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현실을 떠오르게 만든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는 곧 소대 자신이다. 즉, 인재는 준마로 형상화되고, 좋은 인재로 알아보는 통치자는 좋은 말을 알아보는 백락으로 형상화하여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에

35) 劉向《戰國策·燕策二》上海古籍出版社, 1998, 1092쪽.

맞게 선택되기를 또한 통치자는 그에 맞는 해안을 갖기를 피력했다.

이제 말은 덕을 지닌 군자의 비유, 신하의 감정을 기탁하는 상징물에서 나아가 주류 세력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인재라는 좀 더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상징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회적인 공인과 문인들의 모방이 이어지면서 누구나 한 번 보고 그 형상이 지닌 의미와 특성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부패한 관리와 쥐, 도를 체득한 사람과 백정을 자연스럽게 연관시키는 것처럼 우언에 등장하는 말을 보며 독자는 자연스럽게 인재를 떠올리고 자신의 감정을 대입하여 작가의 주제 의식을 파악할 것이다. 이처럼 말감별의 유행이라는 중국의 특수한 현상 속에서 말감별사와 관련된 일화가 확산되고 신흥 계층의 적극성과 맞물리면서 문화적 상징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IV. 馬 형상의 유형과 의미 - ‘建功立業’과 ‘懷才不遇’의 交錯

1. 신흥 계층의 적극성과 馬 형상의 고착

우언에 나타나는 말 형상은 모두 하나의 상징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복합적인 상징 의미를 지니게 된 말이 우언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수용되고 발전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언을 수집하고 분류해야 한다. 우언 목록과 출처는 부록에 표로 정리하였다. 이들 우언을 살펴보니 말의 형상 의미를 기준으로 하면 별다른 상징 의미 없이 비유된 경우, 군주가 좋아하는 대상물로서 비유된 경우, 작자의 감정이 기탁된 문화적 상징으로 작용한 경우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塞翁失馬’라는 성어의 출처가 된 이야기와 같이 어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단순히 차용된 경우이다. 두 번째는 군주가 좋아하는 대상물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龍馬 전설로 기인한 신성함의 추구, 고상한 인격을 가진 군자의 연상 등 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위정자의 기호로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우언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 차용의 경우는 작가가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

에 그와 관련된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생략하고, 두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史記·滑稽列傳》에는 말을 좋아한 군주를 묘사한 대목이 있다.

優孟이라는 사람은 본래 楚나라의 樂人이었다. 키가 8척이며, 변설에 능하여 언제나 담소로써 풍자하였다. 楚 莊王 때 왕이 좋아하는 말이 있었는데, 왕은 그 말에게 무늬 있는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히고, 화려한 집에 두었으며, 장막이 없는 침대 위에서 자게하고, 대추와 마른 고기를 먹었다. 말이 살이 썩 죽자 신하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였는데 속 널과 바깥 널을 갖추어 대부의 예로써 장사 지내려고 하였다. 좌우의 신하들이 이를 다투어 옳지 않다고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감히 말을 가지고 간하는 자가 있으면 죄가 죽음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맹이 이 말을 듣고 대궐문 안으로 들어가 하늘을 우러러 크게 곡하였다. 왕이 그 까닭을 묻자 대답하길 “..... 제후가 이를 듣는다면 모두 대왕이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말을 귀하게 여김을 알게 될 것입니다.”(優孟者, 故楚之樂人也. 長八尺, 多辯, 常以談笑諷諫. 楚莊王之時, 有所愛馬, 衣以文繡, 置之華屋之下, 席以露床. 啗以棗脯. 馬病肥死, 使群臣喪之, 欲以棺槨大夫禮葬之. 左右爭之, 以爲不可. 王下令曰: ‘有敢以馬諫者, 罪至死.’ 優孟聞之, 入殿門. 仰天大哭. 王驚而問其故. 優孟曰: ‘..... 諸侯聞之, 皆知大王賤人而貴馬也.’)³⁶⁾

이와 같은 유형은 모두 비슷한 스토리 전개 방식을 보인다. 말은 군주의 사치와 과잉 욕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일종의 대리물이다. 위정자에게 가해진 엄격한 기준과 대비되는 대상이며, 이를 옆에서 제어해 줄 적절한 인재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군신관계 모순을 드러내는 매개체의 역할도 지닌다.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인재를 상징하는 유형이다. 우언에 등장하는 말이 인재(신하)로 대변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특수한 지역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생태학적 특성으로 기인한 말의 상징 의미가 문화적인 상징으로 탈바꿈하여 확대·재생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형으로 우언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말 형상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줄거리는 모두 비슷하게 전개된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으나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결국은 자신을 알아봐 주는 이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뛰어난 말을 알아보는 백작은 군주로, 자신의 능력을 발탁해줄기를 중용하는 신하는 천리마로 형상화된다. 이

36) 襄駟集解《史記》中華書局, 2009, 3201쪽.

러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인용되고, 시간이 지나며 다른 스토리가 덧입혀져 확대·재생산된다는 것은 그만큼 스토리가 가진 드라마틱함이 크고, 당시 우언 창작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만한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의 우언을 살펴보자.

郭隗先生이 말하였다. “제가 옛날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지요 옛날에 어떤 임금도 천금을 가지고 말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3년이 되도록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내시가 임금에게 ‘제가 구해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는 세 달 만에 천리마를 구하였으나, 말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머리를 5백금에 사가지고 돌아와 임금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임금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을 구하라고 했지, 어찌 죽은 말을 구하여 5백금을 손해 보았더냐?’ 그러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죽은 말도 5백금을 주고 살았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말이야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임금님께서 말을 잘 산다고 생각하면 바로 말이 물려올 것입니다.’ 그러자 1년도 안 되어, 3월의 천리마가 모여왔습니다.”(郭隗先生曰: “臣聞古之君人, 有以千金求千里馬者, 三年不能得, 涓人言於君曰: ‘請求之.’ 君遣之. 三月得千里馬, 馬已死, 買其首五百金, 反以報君. 君大怒曰: ‘所求者生馬, 安事死馬而捐五百金?’ 涓人對曰: ‘死馬且買之五百金, 況生馬乎? 天下必以王爲能市馬, 馬今至矣.’ 於是不能期年, 千里之馬至者三.”)37)

천금을 가지고 말을 구하는 것은 좋은 예우로써 인재를 대우하겠다는 의미이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인재라고 자처하는 간신배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여 위협으로 몰아넣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들을 판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반대로 초야에 묻힌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봐 주는 군주를 만나는 것도 어려웠다. 위의 우언에서처럼 죽은 천리마라도 높은 가격으로 사들인다면 진정으로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군주라는 것을 만천하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인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천리마·백락고사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우언에 나타난 말 형상은 생태적 특성으로 기인한 강인함의 상징에서 군주가 좋아하는 대상물로서의 의미가 더해지고, 상마법이 발전하면서 인재의 상징으

37) 劉向《戰國策·燕策一》上海古籍出版社, 1998, 1065쪽.

로 변화된 후 고착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우언을 활용하는 집단의 지위와 심리가 말 형상 의미를 공고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원하는 신홍 계층의 강력한 욕망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다음의 우언을 통해 살펴보자.

汗明이 (춘신군에게) 말하였다. “군께서도 천리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무릇 천리마 驥가 이미 늙었는데도 소금 수레를 끌고 太行山을 올라갔습니다. 말발굽이 늘어지고 무릎이 구부러졌으며, 꼬리는 똥과 오줌으로 범벅되어 피부가 지지 분해되었습니다. 입의 거품이 땅에 흘러내리고 비지땀이 소금과 뒤섞였습니다. 산중턱을 넘지 못하고 멈추더니 멩에를 끌어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백락이 이 광경을 보고, 말에서 내려 천리마를 어루만지며 통곡하고는 삼베옷을 벗어 덮어 주었습니다. 천리마는 고개 숙여 거품을 뱉다가, 고개 들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경쇠소리처럼 하늘까지 퍼져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천리마는 자기를 알아주는 백락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초한 제가 궁벽한 마을에서 곤역을 당하고, 천한 곳에 살아 더러운 鄙俗에 잠겨 있는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군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천거하여 梁山에 올라 크게 울게 해주지 않습니까?”(汗明曰: “君亦聞驥乎? 夫驥之齒至矣, 服鹽車而上太行. 蹄申膝折, 尾湛附漬, 漉汁灑地, 白汗交流, 中阪遷延, 負轅不能上. 伯樂遭之. 下車攀而哭之, 解紵衣以羈之. 驥於是俛而噴, 仰而鳴, 聲達於天, 若出金石聲者, 何也? 彼見伯樂之知己也. 今僕之不肖, 阨於州部, 堀穴窮巷, 沈淪鄙俗之日久矣. 君獨無意湔拔僕也? 使得爲君高鳴屈於梁乎?” 38)

위의 우언에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으나 그 재능을 알아보지 못한 주인을 만나 수레나 끄는 처지였다가 백락을 만나 그 능력을 인정받고 감동 받는 천리마 驥의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 소금 수레를 끄는 천리마의 곤궁한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선택받지 못한 인재에 대한 동정의 감정을 기탁하였으며 참 인재를 변별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안목을 기를 것을 군주에게 종용하였다. 특히 마지막에 “군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천거하여 크게 울게 해주지 않습니까?”라고 탄식하여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꿈꾸는 강렬한 욕망을 내비쳤다.

춘추전국시대의 신홍 계층은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

38) 劉向《戰國策·楚策四》上海古籍出版社, 1998, 572쪽.

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잠재의식이 들끓고 있었다. 이들은 정치권력에의 강렬한 욕망을 지니고 있었고, 인간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³⁹⁾ 그리하여 스스로 천하 경영의 임무를 담당할 인재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에 이르는데 공자는 “만약 나를 등용한다면 한 달만 되더라도 대략적인 기강을 잡을 수 있고, 삼 년이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⁴⁰⁾”고 하였고, 맹자 또한 “천하를 평안히 다스릴 생각이 있다면 오늘날의 시대에 내가 아니고 누구를 쓴단 말인가⁴¹⁾”라고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그런데 우언은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담긴 형태로 간접적으로 주제를 전달하였으므로 자신의 욕망을 이야기에 숨기기 용이하였고, 설득의 위험도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춘추전국시대의 신흥계층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언을 통하여 군주에게 제시하고, 능력이 되지 않는 자를 등용하였을 때는 우언을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하였으며 백탁과 천리마 고사를 이용하여 능력에 따라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주장하는 등 자신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분투하였다. 이후에 말은 반복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며 인재를 상징하는 형상이 되었는데 신흥 계층의 적극성이 이러한 상징 의미를 공고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비극적 색채의 馬 형상과 문인 심리의 변화

위에서 살펴본 인재를 나타내는 말 형상은 兩漢 시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출현한다. 하지만 先秦 우언에는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다가 知己(君主)를 만나고 감격하는 과정에 집중되었다면 젊을 때는 발탁되었다가 늙어서는 버림받은 비극적 색채의 말 형상이 등장하는 것은 다른 점이다. 다음의 우언을 살펴보자.

39) 홍상훈 《전통 시기 중국의 서사론》 소명출판, 2004, 64쪽 참조.

40) 楊伯俊 《論語譯注·子路》中華書局, 2004, 137쪽: “苟有用我者, 期月而已可也, 三年有成.”

41) 朱熹 《孟子集注·公孫醜章句下》中華書局, 2006, 250쪽: “如欲平治天下, 當今之世, 舍我其誰也.”

田子方이 길에서 老馬를 발견하고 가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禦者에게 “어찌된 말시오?”라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길 “이 말은 전에 관가에서 먹이던 것인데 늙어서 쓸모가 없으므로 팔려 가는 길입니다.”라고 하였다. 전자방은 “젊었을 때에는 그 힘을 혹사하다가 늙어지자 버린다는 것은 인자가 할 짓이 못되지”라며 백전 한 속을 주고 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노쇠한 무인들은 마음을 의지할 곳을 알게 되었다.(田子方見老馬於道, 喟然有志焉, 以問其禦曰: “此何馬也?” 其禦曰: “此故公家畜也. 老疲而不爲用, 出而鬻之.” 田子方曰: “少而貪其力, 老而棄其身, 仁者弗爲也.” 東帛以贖之. 疲武聞之, 知所以歸心矣.)⁴²⁾

위의 우언에서 田子方은 곧 백탁이고, 老馬는 인재이다. 선진 시기 우언에 나타난 천리마 고사와 비슷한 줄거리로 진행되어 관련 이야기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활용되고 버려진 老馬가 등장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周易》에서는 말에 ‘陽剛’의 속성을 부여했고, 老馬도 이에 포함되었다. 또한, 《韓非子》에 管仲과 隰朋이 桓公을 따라 孤竹을 치러 가는 중에 길을 잃자, 늙은 말의 지혜를 이용하여 곧 다시 길을 찾는 모습이 나온다.⁴³⁾ 지혜와 경륜을 갖춘 인물을 老馬로 형상화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말미에 노마의 상징이 되는 노쇠한 무인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며 전자방의 입을 통해 안타까운 현실의 직접적인 비판이 이어진다. 과거에 郭隗선생은 죽은 말을 사서 천하의 인재들을 불러 모을 것을 주장했다. 군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깨우치도록 독려한 방식이다. 그런데 전자방의 입을 빌어 仁者가 할 짓이 아니라고 비판한 것은 이전과는 달리 작가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부각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이다. 한번 등용되었다가 효용가치를 다하고 버려진 老馬가 등장하게 된 것은 달라진 시대 환경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의 우언에도 비극적 색채의 말 형상이 나타난다.

예전에 어떤 나라의 왕이 좋은 말들을 많이 길렀다. 이웃 나라의 왕과 전쟁이

42) 何寧《淮南子集釋》中華書局, 1998, 859-862쪽.

43) 王先慎《韓非子集解·說林上》中華書局, 2003, 176쪽: “봄에 가서 겨울에 돌아오다가 미혹되어 길을 잃었다. 관중이 말하기를 늙은 말의 지혜를 이용할 만하다고 하고 곧 늙은 말을 풀어 그 말을 따라가 드디어 길을 찾았다.(管仲隰朋從桓公伐孤竹, 春往冬反, 迷惑失道. 管仲曰: “老馬之智可用也” 乃放老馬而隨之, 遂得道.)”

벌어졌는데 좋은 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퇴각하여 해산했다. 이때 국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 현재 적들은 모두 퇴각하여 흩어졌는데 말을 키워서 무엇 하겠는가? 전쟁용 말을 사람들의 힘을 돕는데 쓴다면 말을 줄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즉각 전담 부서에 조서를 내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했다. 전쟁용 말들이 연자방아로 곡식을 찧는 일에 쓰인 지 수년이 지났다. 그 후 적국이 다시 국경을 침범하자 명을 내려 말을 불러들여 전쟁에 투입했다. 그런데 연자방아로 찧던 습관 때문에 제자리에서 돌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有一國王，多養好馬。會有鄰王，與其鬥戰。知此國王，有好馬故，即便退散。爾時國王，昨是思惟：..... “今皆退散，養馬何爲？當以此馬，用給人力，令馬不損，於人有益。”作是念已，即勅有司，令諸馬郡，分布與人。常使用磨，經歷多年。其後隣國，復來侵境。即勅取馬，共彼鬥戰。馬用磨故，旋轉而行，不肯前進。)44)

전쟁에서 쓰여야 할 말이 위정자에 의해 자신의 본분을 잃고 백성들의 농사일에 쓰인 것은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할 인재들이 강제로 초야에 묻히게 되는 모습과 같다. 결국 기회가 온다하여도 오랜 시간 동안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에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말과 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비극적 요소가 부각되는 방식이다. 唐詩의 病馬, 老馬, 慢馬 등 비극적 意象이 유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후 우언에 나타나는 말 형상이 ‘懷才不遇’ 쪽으로 강화되는 변화의 시점이기도 그 원인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建功立業’하려는 신흥 계층의 적극성이 천리마 형상을 만들어 낸 것과 비슷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언을 창작한 문인 계층의 지위와 심리 변화를 생각해보자. 춘추전국시대의 士 계층은 불안정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지식을 사회적 실현 수단으로 삼고 기회를 만들고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유세했으며45) 유세의 주요한 수단이 된

44) 鳩摩羅什譯《大莊嚴論經》卷第十五；高楠順次郎，渡邊海旭主編《大正新修大藏經（第四卷）》佛陀教育基金會出版部，1990，346쪽. 다수의 중국우언선집에 불경우언이 포함되어 있고, 불경우언 또한 중국우언으로 간주하는 학자가 많으며, 당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이미지의 말 형상이 출현하는 것은 불경우언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에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삼고 분석하였다.

45) 戰國 중기에 출현한 遊士, 養士는 중국 지식인의 특성을 잘 설명해준다. ‘遊’는 사회적으로 뿌리가 없음을 말해주며, 養은 식객 노릇만이 생존의 수단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遊’의 울타리도 정치에 국한되며 ‘養’의 범위도 단지 정치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

것이 우연이었다. 이들의 정치·사회적 지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지식을 전파하였다. 서양의 사회학자들은 중국 고대 제국의 정치 제도를 논할 때 ‘自由流動資源(free-floating resources)’이라는 계층에 주목하였는데 춘추전국시기의 ‘遊士’가 그에 해당한다. 이들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사회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이들이 없다면 전통적인 주류 세력인 귀족의 힘이 너무나 방대해져 오히려 중앙 정부의 통제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귀족 계층과 평민 계층의 경계에 서 있던 ‘자유유동자원’을 적절하게 주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했다.⁴⁶⁾ 이처럼 우연을 주로 창작했던 ‘遊士’의 불안정한 지위가 오히려 사상이 확대되고 공유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귀족과 중앙 정부, 혹은 나라 간 힘겨루기에 따른 인재 확보책으로 변경에 있던 지식인들이 점차 중심부로 들어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상하 계층의 이동이 자유로웠기에 주류 세력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신흥 계층의 욕망이 강했던 것이고⁴⁷⁾, 우연에 묘사된 말 형상 또한 그러한 적극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다.

하지만 漢代 이후 ‘자유유동자원’은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식인 계층으로 고정되고, 안정된 지위를 갖게 된다. 사대부가 遊士와 다른 점은 같은 종족끼리 연합하여 집단의 힘이 커진 것이고, 토지를 소유하여 세습하게 된 것이다. 余英時的 말을 빌리자면 士族化와 地主化이며⁴⁸⁾, 평생 떠날 수 없는 자신의 영지를 갖게 됨은 곧 개인의 자유와 계층 간의 이동을 상실한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통치자의 기호에 따라 쉽게 등용되었지만, 쉽게 좌천당하였기 때문에 안정된 정치적 세력 속에서 불안정한 관직을 유지해야하는 모순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劉周堂은 문인들의 불

라서 중국 고대의 지식인들은 생계유지 혹은 자신들의 지식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의 길만이 유일한 출구였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대한 의식이 농후하였다. 김경동 《원진·백제이 사회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38쪽.

46) S. N. Eisentadt 《The Political Systems of Empires, The Rise and Fall of the Historical Bureaucratic Societies》 Free Press, 1963, 27-28쪽.

47) 유세를 잘 한 사람은 출신 성분과 국적에 관계없이 곧바로 요직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張儀列傳》에 따르면 제후 한 사람만 설득하면 封侯가 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리하여 천하의 유세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밤낮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면서 남의 입금을 설득하려 하였다.

48) 余英時 《士與中國文化》上海人民出版社, 2008, 53쪽.

우에 관하여 ‘求不得官’, ‘說不得用’, ‘官不得升’, ‘官不得久’의 네 가지 상황을 제시한 바 있다.⁴⁹⁾ 이는 관직을 얻으려고 하여도 얻을 수 없고, 상서를 올려도 임금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관직이 오르지도 관직에 오래 머물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점차 不遇의 심리가 싹 텄을 것이다.

桓帝, 靈帝때에 이르면 정치 환경이 매우 불공평했으며 나라의 운명이 환관들의 수중에 있어서 보통 백성들도 자기의 분노를 감히 토로하였고, 벼슬을 하지 못한 선비들은 도처에서 조정을 의논했을 정도였다.⁵⁰⁾ 결국 황권과의 모순이 전면적으로 충돌했고, 두 차례에 걸쳐 대학생과 문인들을 체포하고 하옥하여 종신토록 관리가 될 수 없는 ‘黨錮의禍’가 일어난다. 진시황의 분서갱유에 필적하는 사상 탄압이었다. 班固는 西漢이 쇠망의 길로 나아간 것은 權臣들의 정치권력 독점과 전횡, 간언할 수 있는 통로의 막힘, 관리의 부패로 인해 사회적 모순이 격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⁵¹⁾ 바르고 곧은 말을 할 수 있는 길을 막음으로써 충신들의 마음을 꺾고, 지혜로운 선비들의 입을 강제로 막아버린 것이다.⁵²⁾

이에 경학은 급속하게 쇠퇴했으며 지조와 절개를 존중하는 지식인들을 살해하거나 금고에 처했기 때문에 이를 목도한 문인들의 심리는 급격히 변화하였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심으로 통일 정권을 유지해야겠다는 온건한 목소리는 현실 정치에 대해 비판적이고 격앙된 목소리로 점차 바뀌다가, 충성을 다했으나 버려지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점차 비애의 심리를 갖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적극적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고, 은거하며 문을 닫고 내적 세계로 침잠하는 문인들이 많아졌다.⁵³⁾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존의 이미지와는 달리 불공평한 현실에 순응하

49) 劉周堂 〈論文士不遇〉; 《中國文學研究》1期, 1997, 10쪽.

50) 范曄 《後漢書·黨錮列傳》中華書局, 2007, 1476쪽: “逮桓靈之間, 主荒政繆, 國命委於閹寺, 士子羞與爲伍, 故匹夫抗憤, 處士橫議, 遂乃激揚名聲, 互相題拂, 品覈公卿, 裁量執政, 婞直之風, 於斯行矣.”

51) 陳其泰, 趙水春 지음, 정명기 옮김 《반고평전》 다른생각, 2013, 280-291쪽 참조.

52) 班固 《漢書·諸葛豐傳》中華書局, 1999, 3250쪽: “今讒夫得遂, 正直之路壅塞, 忠心沮心, 智士杜口.”

53) 楊倫은 세 번 조정에 초빙되어 직간하였으나 황제는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했다.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가 대문을 닫아걸고 강의하면서 관부와의 왕래를 끊었다. 조정에서 다시 모시러 왔으나 도망치고 말았다는 기록이 《後漢書·方術傳》에 나타난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고 자신의 능력을 다할 수 없음을 체념하는 문인 심리가 그대로 말 형상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建功立業(현실 참여)과 인생무상에 대한 비애(현실 회피)가 혼재되어 과격하게 표현되면서도 슬프고 처량한 면을 함께 내포하는 상징 의미로 변모한 것이다. 시를 통해서도 의식적으로 ‘秋風’, ‘飛蓬’, ‘飛鳥’, ‘白露’ 등 비극적인 상징물들을 창작하여 작가의 감성을 그대로 투영하였다면, 그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언의 말 형상이다. 신흥 세력의 적극성과 욕망을 담고 있었던 천리마는 이제 각 시대에 맞게 재해석될 수 있는 다층의 공간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韓愈는 〈馬說〉에서 백락과 천리마의 관계를 빌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태를 개탄했고⁵⁴⁾, 元代 劉基는 《郁離子》에서 종족과 지역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편 元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산지에 따라 방치된 천리마를 통해 보여줬다.⁵⁵⁾ 군주를 위해 달리고 싶어하는 천리마의 심정과 버려지고 쓸모없어 버려진 노마의 비애가 동시에 형상화된

54) 馬其昶校注《韓昌黎文集校注》上海古籍出版社, 1998, 35-36쪽: “세상에 백락이 있고 난 연후에 천리마가 있다. 천리마는 늘 있지만 백락은 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명마가 있어도 다만 노예의 손에서 욕을 당하다가 마구간에서 다른 말과 나란히 죽을 뿐, 천리마로 불리지 못한다. 천 리를 갈 수 있는 말은 한 번 먹으면 간혹 곡식 한 섬을 다 먹는다. 그런데 말을 먹이는 이가 천 리를 갈 수 있음을 모르고 먹인다. 그러니 이 말은 비록 천 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배불리 먹지 못해 힘이 부족하여 재능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한다. 나아가 일반 말과 같고자 하여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어찌 천 리를 가기를 바라겠는가? 부리되 바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먹이되 양을 채워 주지 못하며, 울리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채찍을 들고 다가가선 말한다. ‘천하에 말이 없구나.’ 아! 정말 말이 없는 것인가? 진정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리라!(世有伯樂, 然後有千里馬. 千里馬常有, 而伯樂不常有. 故雖有名馬, 祇辱於奴隸人之手. 駢死於槽枥之間, 不以千里稱也. 馬之千里者, 一食或盡粟一石. 食馬者, 不知其能千里而食也, 是馬也, 雖有千里之能, 食不飽, 力不足, 才美不外見, 且欲與常馬等不可得, 安求其能千里也? 策之不以其道, 食之不能盡其材, 鳴之而不能通其意, 執策而臨之曰, “天下無馬.” 嗚呼! 其真無馬耶? 其真不知馬也!)”

55) 劉基 지음, 오수형 옮김 《郁離子; 중국우언산책》 궁리, 2003, 17-19쪽: “욱리자의 말이 馱馱라는 준마를 낳았다. 사람들은 ‘이 말은 천리마이니 반드시 궁궐의 마구간에 보내시오.’라고 하였다. 욕리자도 기뻐하며 그들의 말을 따라 경성에 갔다. 천자는 말을 관장하는 太僕에게 명하여 지방의 공물 목록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북방 명마 산지인 冀 지방에서 태어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궁궐 밖의 마구간에 방치하였다.(郁離子之馬, 孽得馱馱焉. 人曰: 是千里馬也. 必致諸內廄. 郁離子說, 從之. 至京師, 天子使太僕閱方貢, 曰: 馬則良矣, 然非冀產也. 置之於外牧.)”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다 할 수 없는 인재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회 비판 의식이 말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작 계층의 지위와 심리의 변화로 우언에 나타난 말 형상 또한 변화가 생겼으며 '建功立業'하려는 신흥 계층의 적극성을 반영한 천리마 형상에 '懷才不遇'한 감정이 더해져 사회 비판 의식을 발현하는 독특한 전통을 만들어낸 것이다.

V. 맺음말

일반적으로 우언에 나타나는 형상은 객관성을 유지하며 작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춘추전국시대 유세객들이 우언이라는 특수한 비유의 방식을 선택한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혹은 흥미를 유발하여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이야기 속에 일례로 든 또 하나의 이야기 속에는 자신과 관계없는 역사적 인물이나 민간에서 유행하는 이야기, 인간 세계와는 관계가 없는 동식물 등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등장인물(동물)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뿐이다. 예를 들어 '狐假虎威' 성어의 출전이 되는 우언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여우의 꾀에 속는 아둔한 모습으로 등장한다.⁵⁶⁾ 물론 신화의 간계함을 판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군주를 비판하기 위해 차용된 것이지만 말과 같이 특수한 계층을 대변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또한 작가는 호랑이에 어떠한 감정의 기탁도 하지 않는다.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랑이에 대한 갖고 있는 두려움, 경외, 신성함 등은 전혀 작용하지 못하고 현실 세계의 군주와 대응이 되는 우둔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런데 말은 어떠한가. 말은 군주를 설득하고 있는 작가 자신이다. 혹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대변자이다. 따라서 작가의 감정과 비판 의식이 그대로 투영되어 복

56) 劉向《戰國策·楚策一》上海古籍出版社，1998，482쪽：“虎求百獸而食之，得狐，狐曰：‘子無敢食我也。天帝使我長百獸，今子食我，是逆天帝命也。子以我爲不信，吾爲子先行，子隨我後，觀百獸之見我而敢不走乎？’虎以爲然，故遂與之行，獸見之皆走，虎不知獸畏己而走也，以爲畏狐也。”

합적인 상징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원하는 지식인의 강렬한 욕망과 선택받지 못함에 대한 불안과 좌절을 동시에 내포하는 상징물로써 청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우연의 소재로 등장하면서 하나의 문화적인 형상으로 인식되고, 수용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용마전설, 상마법, 백락과 구방고 등 말감별사 일화의 확산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말 형상이 지닌 의미와 변천, 그 속에 담긴 창작 계층의 심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1차적으로 수집한 연구 대상이 주로 선진 양한에 편중되어 있어 인재라는 문화적 상징으로 고착화된 당 이후 작품은 수집, 보강하여 후속 연구로 기약하고자 한다.

[부록] 馬 형상이 나타난 우언 목록

본고에서는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권석환의 《선진우언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3)에 수록된 선진 시기 우언 목록, 陳蒲淸의 《中國古代寓言選》(湖南教育出版社, 1985), 馬亞中, 吳小平의 《中國寓言大辭典》(江蘇文藝出版社, 1997)에 수록된 목록을 통해 말 형상이 나타나는 우언을 선별한 후 아래와 같이 시대별로 정리하고 아울러 저본을 표시하였다. 우언선집에서 명명한 제목은 부호 ‘[]’에 함께 제시하였다.

	출전	저본
선 진	1 《列子·湯問》造父之師〔造父禦習〕	楊伯峻《列子集釋》中華書局, 1985, 184-186
	2 《列子·說符》秦穆公謂伯樂曰〔九方臯相馬〕	”, 255-258
	3 《列子·說符》齊有貧者常乞於城市〔豈辱馬醫〕	”, 270
	4 《韓非子·喻老》趙襄主學禦於王子期〔心不在馬〕	王先慎《韓非子集解》中華書局, 2010, 167
	5 《韓非子·說林上》管仲隰朋從桓公伐孤竹〔老馬識途〕	”, 176
	6 《莊子·內篇·人間世》夫愛馬者〔拊馬不時〕	陳鼓應《莊子今注今譯》中華書局, 2009, 143
	7 《莊子·外篇·馬蹄》馬蹄可以踐霜雪〔真馬之死〕	”, 267
	8 《莊子·外篇·馬蹄》夫馬陸居則食草飲水〔伯樂之罪〕	”, 273
	9 《莊子·外篇·達生》東野稷以禦見莊公〔東野稷敗馬〕	”, 527

	출전	지본
선진	10 《管子·小門》桓公乘馬虎望見之而伏〔虎畏駁馬〕	黎翔鳳《管子校注》中華書局, 2004, 968
	11 《荀子·哀公》定公問於顏淵曰〔東野畢之馬失〕	王先謙《荀子集解》中華書局, 1988, 546
	12 《戰國策·楚策四》汗明曰君亦聞驥乎〔驥遇伯樂〕	劉向《戰國策》上海古籍出版社, 1998, 572
	13 《戰國策·韓策三》段幹越人謂新城君曰〔王良弟子駕馬〕	”, 1036
	14 《戰國策·燕策一》郭隗先生曰〔千金求馬〕	”, 1065
	15 《戰國策·燕策二》蘇代爲燕說齊〔馬價十倍〕	”, 1092
	16 《呂氏春秋·孝行覽·必己》孔子行道而息〔孔子馬逸〕	許維通《呂氏春秋集釋》中華書局, 2010, 351
	17 《呂氏春秋·離俗覽·用民》宋人有取道者〔取道殺馬〕	”, 525
양한	1 《淮南子·人間》近塞上之人有善術者〔塞翁失馬〕	何寧《淮南子集釋》中華書局, 1998, 1256
	2 《淮南子·人間》孔子行遊〔孔子馬逸〕	”, 1292-1294
	3 《淮南子·人間》趙宣孟活饑人〔田子方見老馬〕	”, 1299
	4 《淮南子·道應》秦穆公謂伯樂曰	”, 859-862
	5 《淮南子·汜論》秦穆公出遊而車敗	”, 974-975
	6 《新語·辨惑》至如秦二世之時〔指鹿爲馬〕	王利器《新語校注》中華書局, 1997, 75-76
	7 《論衡·非韓》周公問太公誅二子〔宋人禦馬〕	王充《諸子集成》卷七, 中華書局, 97
	8 《史記·孫子吳越列傳》忌數與齊諸公子馳〔田忌賽馬〕	裴駰集解《史記》中華書局, 1999, 1058
	9 《史記·滑稽列傳》優孟者故楚之樂人也〔楚王葬馬〕	”, 2425

	출전	지본
위진남북	1 《苻子》齊景公好馬〔按圖訪馬〕	嚴可均輯《全晉文(下)》 商務印書館, 2006, 1656
	2 《劉子·因顯》昔有賣良馬於市者〔一顧千金〕	劉晝著, 傅亞庶撰 《劉子校釋》 中華書局, 1998, 202
	3 《大莊嚴論經》卷第十五〔戰馬推磨〕	高楠順次郎, 渡邊海旭主編 《大正新修大藏經(第四卷)》 佛陀教育基金會出版部, 1990, 346
	4 《出曜經》卷第十四〔吃煎麥的下場〕	”, 688
	5 《北史》列傳第十二〔王皓失馬〕	李延壽撰《北史》中華書局, 2003, 891
당송원명칭	1 韓愈〈馬說〉	馬其和校注《韓昌黎文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98, 35-36
	2 劉禹錫〈說驥〉	劉禹錫《劉禹錫集》, 中華書局, 1990, 82
	3 《郁離子·千里馬》郁離子之馬〔千里馬〕	劉基《誠意伯文集》
	4 《郁離子·千里馬》周厲王使芮伯〔芮伯獻馬〕	”
	5 《郁離子·瞽瞍》〔殺馬以活馬〕	”

【參考文獻】

- 嚴可均《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中華書局，1999.
- 周紹良譯注《百喻經譯注》，中華書局，2008.
- 孫昌武譯注《雜譬喻經譯注》，中華書局，2008.
- 高楠順次郎，渡邊海旭主編《大正新修大藏經》，佛陀教育基金會出版部，1990.
- 蘇淵雷，高振農選輯《佛藏要籍選刊》，上海古籍出版社，1994.
- 公木《先秦寓言概論》，齊魯書社，1984.
- 陳蒲清《世界寓言通論》，湖南教育出版社，1990.
- 於迎春《漢代文人與文學觀念的演進》，東方出版社，1997.
- 馬亞中，吳小平《中國寓言大辭典》，江蘇文藝出版社，1997.
- 李富軒，李燕《中國古代寓言史》，[台]志一出版社，1998
- 於迎春《秦漢士史》，北京大學出版社，2000.
- 楊玉華《文化轉型與中國古代文論的嬗變》，巴蜀書社，2000.
- 白本松《先秦寓言史》，河南大學出版社，2001.
- 余英時《士與中國文化》，上海人民出版社，2003.
- 羅宗強《魏晉南北朝文學思想史》，中華書局，2006.
- 윤승준《動物寓言의 傳統과 寓話小說》，월간, 1999.
- 진포청 지음, 오수형 옮김《중국우언문학사》，소나무, 1994.
- 한국우언문학회《동아시아 우언론과 한국의 우언문학》，집문당, 2004.
- 한국우언문학회《동아시아 우언문학 비교론》，집문당, 2005.
- 권석환《선진우언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츠영지앙〈중국 민간 서술문학에 나타난 말〉;《제3회 국제아세아민속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국제아세아민속학회, 1999.
- 동샤오핑〈중국 명대 사대기서 전설에 타나난 말〉;《제3회 국제아세아민속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국제아세아민속학회, 1999.
- 김재환〈動物의 文學的 發想과 寓話小說〉;《새얼어문논집》，2000.
- 윤승준〈한중 우언의 동물 상징〉;《동방학지》，2007.
- 변귀남〈六度集經의 寓言特色 小考 - 動物寓言을 중심으로〉;《중국어문학》，2007.
- 송영숙〈일본의 십이지 동물설화 연구(I): '말(馬)' 모티프의 상징에 대한〉;《일본어문학》，2008.
- 景秀麗《先秦文學中的馬及其文化精神》，遼寧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07.
- 張玉璞〈懷才不遇情結與韓愈的人才利用思想〉;《江西社會科學》第8期，1997.
- 王繼訓〈兩漢之際士人與士風〉;《齊魯學刊》第5期，2000.

- 張夕, 王齊洲〈論中國早期知識分子的文化精神〉:《江漢論壇》, 2002.
- 林甘泉,〈中國古代知識階層的原型及其早期歷史過程〉:《中國史研究》第3期, 2003.
- 馬亮寬〈略論士人知識群體的形成及社會屬性〉:《聊城大學學報》第4期, 2004.
- 王立〈病馬、老馬、慢馬意象與佛經故事—文學意象家族與文人心態史探佚〉:『遼東學院學報』第3期, 2004.
- 王立, 郝明〈唐代文學中的馬意象〉:《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第3期, 2004.
- 李炳海〈原始野性的展示, 弱化和重現 - 先秦文學馬意象的演變〉:《社會科學戰線》, 2005.
- 朱寶榮〈動物形象:小說研究中不應忽視的一隅〉:《文藝理論與批評》第1期, 2005.
- 布莉華〈談詩經中“馬”的文學價值〉:《承德民族師專學報》第28卷 第3期, 2008.
- 蘭翠〈論古代馬的審美文化特質-以唐人詠馬畫馬為中心的考察〉:《文史哲》第6期, 2009.

【中文提要】

寓言的形象具有類型性, 寓言作者對社會與自然形象進行觀察分析, 著重其特征, 分解為不同類型, 塑造出有高度思想和藝術概括力的寓言形象。任何形象都經過類型化與個性化的過程。寓言形象都是通過作者的精細刻畫的過程, 加工‘言在此而意在彼’的境界, 包括形象本有特性, 也包括當時的社會賦予它的特性。‘馬’是中國古代藝術中常見題, 作為一種動物, 馬以其在古代戰爭和生活中的重要作用成為人類的重要夥伴。隨著古代社會的進步和歷史的發展, 馬逐漸融合了深厚的文化意義。特別是在寓言文學作品中, 馬的形象代表著人中精英, 千里馬等待著真正識馬的伯樂, 所以‘馬’常常被借以表達懷才不遇的士人心態。那麼寓言的作者, 為什麼選擇馬的形象來表現自己的心態? 它帶著什麼樣的文化內涵? 這確實與中國的特殊情況有關。馬與人們生活發生的密切聯繫, 它速度快, 可以代步, 載力大, 可以拉車, 是實際生活中不可缺少的。馬在先秦時期, 一直受到人們的重視。西周時期就建立了‘馬政’, 他們主要負責對官用馬匹的牧養、訓練、使用、采購等。人們對馬的重視和喜愛, 以及馬與人們生活發生的密切聯繫, 它具有了獨特的價值和意義。馬在寓言作品中的出現, 主要有兩種形式, 一是物象的馬, 這些作品主要描寫了馬在社會生活中的

作用, 如戰爭、狩獵、日常生活等, 它的價值蘊涵主要是功用性的。二是具有藝術形象的馬, 即以具體的形象來表達作者的思想感情。與當時文人的懷才不遇情相結合, 形成了獨特的藝術境界。這種士人的懷才不遇的情懷, 常常與伯樂和千里馬的故事形成呼應, 形成了寓言作品常將“馬”作為人才化身來進行描寫的創作傳統。

【主題語】

우언, 말 형상, 천리마, 백락, 문화적 상징

寓言, 馬形象, 千里馬, 伯樂, 懷才不遇

Chinese Allegoric tales, horses' images, Cultural Symbols, Transition, Animal Allegories

투고일: 2015. 7. 15 / 심사일: 2015. 7. 20~8. 5 / 게재확정일: 2015. 8. 10